

II. 경제·정치 동향

1. 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표 II-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제 성 장 률	5.3	7.1	3.8	0.8	3.2
재 정 수 지 / G D P	-1.0	-0.2	-0.9	-3.7	-3.6
소비자물가상승률	6.2	2.8	9.3	3.3	4.6

자료 : IFS 및 EIU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세 둔화

— 필리핀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연 5%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정부지출 확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 등에 힘입어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0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로 둔화되었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증가하고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도 효과를 거두면서 2분기부터 국내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성장률은 당초 마이너스 전망에서 개선되어 0.8%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10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둔화된 해외 근로자 송금액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회복되는 한편, 해외수요도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수요 감소 및 상품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 안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년부터 3년간 연평균 6~7%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에는 식료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폐소화강세로 인해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2.8%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주요 식료품 가격 및 유가가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전년 동월대비 12.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급락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요인의 완화로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3%를 기록하였음.

- 이후 소비수요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9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년 이래 최저인 전년 동월대비 0.1%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009년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3.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국내소비 회복 및 국제유가 등 상품가격 상승과 더불어, 2009년 9~10월 태풍으로 인한 국내 쌀 수확량 감소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6%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외에 폐소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 동결 및 환율 상승 전망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2008년 11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1%에서 19%로 인하하였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하였음(현재 기준금리 6%). 2009년 8월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현 금리수준에서 통화완화 정책이 유지되어 왔음.
- 2008년 중 미 달러화 대비 필리핀 폐소화의 환율이 약 13.7% 상승한 이후(1월 1일 41.96페소/달러 → 12월 31일 47.69페소/달러), 2009년 들어서는 평균 47.10페소/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음.

- 2010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증가, 세계경기의 지속적인 약세시 우려되는 해외 근로자 송금액 증가율 둔화, 선거로 인한 국내정치 불안, 이슬람 세력에 의한 사회 불안 등으로 인하여 폐소화 환율이 상승세를 보여 1달러당 평균 48페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경제가 더디지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0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3.5~5.5%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일부 경기부양책의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또한 폐소화 환율 하락이 수출실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010년 중반쯤에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증가 예상

- 필리핀은 세수기반 취약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 실시와 재정수지 적자 해소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왔음.
-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 국영 통신회사의 민영화 등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재정수지 적자는 10년 만에 최저인 GDP의 0.2%를 기록하였음. 2008년에는 식료품 지원 및 현금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정부지출은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GDP의 0.9%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민영화 자산 매각 부진,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필리핀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에는 세수가 정부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정부의 계획인 GDP의 2.8%보다 다소 높은 GDP의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나. 대외거래

□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의 하락으로 상품수지 적자 다소 감소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반도체 등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II-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5,347	7,119	4,227	8,913	7,287
경상수지/GDP	4.5	4.9	2.5	5.6	4.3
상 품 수 지	-6,732	-8,391	-12,582	-9,247	-12,222
수 출	46,526	49,512	48,202	38,236	44,595
수 입	53,258	57,903	60,784	47,483	56,817
외 환 보 유 액	20,025	30,211	33,193	37,898 ^{주)}	..
총 외 채 잔 액	60,282	65,845	67,061	66,077	64,674
총외채잔액/GDP	51.3	45.7	40.0	41.2	38.5
D. S. R.	18.9	13.0	14.8	16.4	13.8

주 : 2009년 10월말 현재

자료 : IFS 및 EIU

- 2009년에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 상품수지 적자가 92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국제 상품가격 및 국내소비의 회복으로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 관광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¹⁾ 부문의 호조에 따른 서비스 수지 개선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가 지속되어 2007년 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서비스수지의 흑자 기록 및 소득수지의 흑자 전환(2007년 8억 9,200만 달러 적자→2008년 1억 4,600만 달러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40.6% 감소한 4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입 급감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감소,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의 흑자 지속으로 2009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도 GDP의 2.5%에서 5.6%로 상승한 8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3%로 감소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숙련된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주요

1) 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콜센터, 재무, 회계, 인사, 교육, 서비스 등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일부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필리핀 근로자 고용국가들과의 고용계약 협상을 통해 해외근로자 고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낮은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

- 2003년 이래 필리핀의 외채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며, 2009년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이 약 41%로 외채상환 부담은 다소 과중한 편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외채상환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D.S.R.이 약 15% 전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2009년 1월 필리핀 정부는 2009년도 들어 아시아 최초로 15억 달러의 채권(10년 만기, 표면금리 8.5%)을 발행한 데 이어, 동년 7월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10년 만기, 표면금리 6.625%)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2009년 해외차입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바 있음.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정상적인 채무상환

- 1990년 11억 달러의 채무 리스케줄링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리스케줄링 기록은 없으며,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상환한 바 있음.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은 큰 편이나 현재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현황

- OECD는 2008년 4월 경제성장률 상승, 물가상승률 안정, 재정수지 적자 감소 등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09년 7월 필리핀이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필리핀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1에서 B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반면, S&P와 Fitch의 필리핀에 대한 신용등급은 각각 BB-와 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한국수출입은행	C3 (2009. 9)	C3 (2009. 2)
OECD	4등급 (2009. 4)	4등급 (2008. 4)
S & P	BB- (2005. 1)	BB (2003. 4)
Moody's	Ba3 (2009. 7)	B1 (2005. 2)
Fitch	BB (2003. 6)	BB+ (1999. 7)
I. C. R. G.	65/140 (2009. 12)	72/140 (2009. 6)
Euromoney	78/186 (2009. 9)	77/186 (2009. 3)
I. I.	76/178 (2009. 9)	75/177 (2009. 3)

□ 주요 ECA의 지원태도(2010. 1월 현재)

- 미국 수은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단기 인수 가능, 한도적용 없음

2.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 아로요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정권 유지 시도

- 야당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양원제)에서 의원 내각제(단원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총리로서 재집권을 하거나, 대통령 단임제(6년 임기)를 폐지하여 재선에 출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해 왔음.
- 아로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정치에서 은퇴하지 않고 하원의원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로요 대통령이 하원의원에 당선될 경우 자신과 가족들이 연루된 부패혐의에 대해 기소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현재 지지도 하락으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도 의회가 현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

제로 헌법을 개정할 경우, 아로요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되어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됨.

□ 2010년 5월 대통령 선거 실시

- 2010년 5월 필리핀에서 대선과 총선(하원 전체 및 상원의 1/2)이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아로요 대통령은 헌법상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으며, 출마하더라도 지지도 하락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가운데, 2009년 8월 1일에 서거한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3세(Benigno “Noynoy” Aquino III) 상원의원이 2009년 9월에 현지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지지를 받아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었음.
-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키노 상원의원이 최근 어머니인 아키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보여준 정서를 잘 활용할 경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아키노 상원의원은 현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싫증난 국민들에게 청렴한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치활동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선거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

— 그 뒤를 이어서 야당 상원의원이자 부동산 거물인 마누엘 빌라 주니어(Manuel Villar Jr.)가 14%, 조지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전 대통령이 13%,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 상원의원이 12%의 지지율을 차지하였음. 그밖의 대선 후보들로는 놀리 드 카스트로(Noli De Castro) 현 부통령, 마누엘 록사스 2세(Manuel Roxas II) 상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음.

·마누엘 빌라 상원의원과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으나,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경우 2007년에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아로요 대통령의 사면조치가 없었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상황이므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임.

·마누엘 빌라 상원의원 또한 2008년에 도로 가격 책정과 관련된 스캔들로 인하여 상원의원 의장의 자리에서 축출된 바 있어서 명성에 흠집을 입은 바 있음.

— 한편, 현 집권 연립정부인 Lakas-Kampi-CMD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의 후보자인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는 현재 지지도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 정부의 재정 및 실행계획 지원을 받아 지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반면, 역으로 아로요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그의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선거 테러에 아로요 대통령 연루 가능성 제기

— 2009년 11월에 민다나오 섬 마긴다나오(Maguindanao) 주에서 2010년 5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자 일행과 기자 등 57명이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필리핀 군 당국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안달 암파투안 주니어(Andal Ampatuan Jr.)를 체포하였음.

- 암파투안이 아로요 대통령과 정치적 동맹관계인 마긴다나오 주의 주지사 아들로 밝혀짐에 따라, 아로요 대통령이 동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이번 대학살 사건은 필리핀 선거 테러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선거기간 중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나. 사회 동향

□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 상존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내 과격단체들에 의한 납치, 테러 및 무장 충돌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 불안요인으로 상존해 왔음.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주의 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루손 섬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인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NPA) 등이 대표적인 무장 과격단체로 알려져 있음.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 정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해왔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한 군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축출도 국민들에 의해 주도된 것임.

□ 이슬람 반군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 고조

—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중재 아래 40여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안에 합의했으나, 가톨릭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2008년 8월 대법원이 평화협상안 추진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실망한 이슬람 반군들은 민다나오섬의 가톨릭 마을을 공격했고, 정부 역시 이에 무력 대응하며 이후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음.

· 민다나오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이 이주해 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 간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의 결과, 2009년 7월 휴전 유지, 가서명된 협상안 인정, 비전투원들을 보호를 위한 기구 설립, 평화절차를 지원할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국제 관계그룹 설립에 합의하였음. 양측간 이견으로 평화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영구적인 평화 정착 없이 서부 민다나오의 안보 상황은 불안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다. 국제관계

□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

— 필리핀은 ASEAN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

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나, 양국간 급증하는 무역 및 투자에는 장애가 되지 않고 있음.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국가들도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ASEAN을 중심으로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로서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2008년 기준 총 수출의 16.9%, 수입의 15.2%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 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해 필리핀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8년 1월 양국은 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군사물자의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협력을 약속하였음.

3. 성장 동인 및 장애 요인

가. 성장 동인

□ 풍부한 노동력 등 성장 잠재력 보유

- 풍부한 광물자원, 인구 9,798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 영어에

능통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왔으며,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콜센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필리핀은 BPO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중 콜센터는 BPO의 핵심 산업임. 인도와 함께 전 세계 콜센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약 12만 명이 콜센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필리핀은 영어에 능통한 노동력이 많아 콜센터 서비스 사업 유치에 유리하며, 정부가 콜센터 서비스 직원 전문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필리핀 정부는 콜센터 육성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설립 후 4~8년간 법인세 면제, 법인세 면제 기간 종료 후 5% 세율 적용, 수입 자본재에 대한 세금 면제, 위탁장비의 제약 없는 사용, 외국인 고용 허가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음.

나. 장애 요인

□ 유류 등 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비중

— 필리핀은 유류 등 연료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의 상승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및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필리핀의 하루 평균 원유 수입량 : 353,700 배럴(2008년, 세계 29위 수준)

□ 수출구조의 취약성

— 총 상품수출에서 전자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이며, 총 수출의 30% 이상이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이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을 정도로 필리핀 경제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액 : 127.6억 달러(2006년) → 144.5억 달러(2007년) → 164.3억 달러(2008년) → 157.8억 달러(2009년 1~11월)

□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 전반적으로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은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총 외채잔액(2009년 기준) : 41.2%